

방사능 공포에 고등어·명태 안 팔린다

남해·동해산 수산물 매출 급감… 산지 희비

서해산은 전어 120%·꽃게 65% 매출 급증

일본 방사능 오염수 공포 속에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수산물이 종류와 산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산물 매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어와 꽃게 등 서해산 수산물이 잘 팔리고 고등어와 갈치 등 동해·남해산 수산물의 매출은 큰 폭으로 줄어들어 바다별로 명암이 극명히 엇

갈렸다. 이미트에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수산물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7.5% 감소했다.

이 가운데 동해·남해에서 잡히는 고등어와 갈치 판매는 각각 31.2%, 11.2% 하락했다. 일본과 가까운 오후크해산 명태는 48.1% 줄었다. 반면 서해산인 전어 매출은 무려 120.7% 증가했다. 꽃게는 65.2% 증

가했다. 롯데슈퍼의 지난달 수산물 매출도 작년 동기보다 14.3% 감소한 가운데 서해산 수산물 매출은 크게 증가했다. 해조류는 268.4%, 조개류는 119.5% 각각 급증했으며 제철을 맞은 새우(38.2%)와 꽃게(24.6%) 판매도 호조였다.

그러나 남해와 동해산 수산물을 눈에 띠게 매출이 감소했다. 삼치(남해) 판매가 61.5% 급감했고, 고등어(남해)와 꽃게(동해 또는 수입)도 각각 31.6%, 35.6% 줄었다. 주부 박모(45)씨는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그나마 오염 가능성에 적은 수산물을 찾게 된다”며 “고

출은 각각 131%, 14.9% 신장했다. 국내산 꽃게 매출이 15.9% 신장한 데 반해 미국과 캐나다산 랍스터 매출은 831.5%나 폭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산물 선호 경향도 달라지고 있다.

일본과 거리가 먼 서해산 수산물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고 언어나 랍스터 등 아예 오염원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의 수입 수산물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부 박모(45)씨는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그나마 오염 가능성에 적은 수산물을 찾게 된다”며 “고

등이나 명태 대신 같거나 끓거나 수입산 연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 하는 등 수산물 안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소비도 덩달아 줄어들어 큰 걱정”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등을 받아 산간에 판매하는 등 격차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전시·판매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오늘 개장

전남지역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http://www.naenam.com>)’이 문을 연다. 전남도는 9일 오전 11시 도청 윤선도홀에서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나눔’ 개장을 있다고 8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은 전국 광역시도 중 전남이 최초다.

전남도는 좋은 제품임에도 판매처 제한 등 애로가 있으나 쇼핑몰 구축으로 일반 소비자나 공공기관의 접근성이 편리해 제품 판매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나눔은 전남도가 2011년부터 독자적으로 개

발한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다. ‘녹색의 땅 전남’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표현했다.

녹색나눔에는 도내 90여 개 사회적 기업이 입점해 있다.

사회적 약이자 취약 계층인 이주여성과 장애인 등이 함께 만든 모시오송편, 전통장류, 빵과 쿠키, 의류와 침구류, (목)공예품, 친환경 쌀, 과일, 수산물, 축산물 등 판매하는 지역 친환경 제품이 500여 종에 이른다.

오는 17일까지 개장 기념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일부 품목은 최대 20% 까지 할인한다.

/오픈기자 kroh@kwangju.co.kr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10일 북광주농협 신용동지점앞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10일 첨단2지구 북광주농협 신용동 지점 앞에서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농협 광주본부는 이와함께 매주 직거래장터를 찾아오는 지역민(매일 250명)에게 이틀간 우리농산물인 새송이 버섯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갖는다.

이날 직거래장터에는 농가와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하고 가공한 각종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등 우수한 농산물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게 된다. 주요 품목으로는 과일, 채소,

한과, 축산물, 수산물 등 명절 기간 종소비가 많은 농수특산물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추석선물 스카프 인기

추석을 10여일 앞둔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패션잡화 매장에 기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스카프가 선봬 여성을 위한 추석 실속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추석 연휴 백화점 쉬고 대형마트는 정상영업

신세계 18~19일, 롯데 19~20일 휴업

추석 연휴기간 지역 백화점은

쉬거나 대형마트의 경우 대부분이 정상 영업한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추석 연휴 기간 18~19일 휴업하고 20일에는 정상 영업한다고 밝혔다.

또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연장영업에 돌입하게 된다. 평일 영업 종료시간을 30분

지 이를 동안 휴점한다.

또한 롯데아울렛 수완점과 월드

컵점은 추석 당일 19일에만 휴점하며,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정상영업할 계획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19일 광양점이 휴무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점포가 정상영업한다.

한편 NC백화점 광주점은 추석

당일인 19일만 쉬고 나머지 일은

문을 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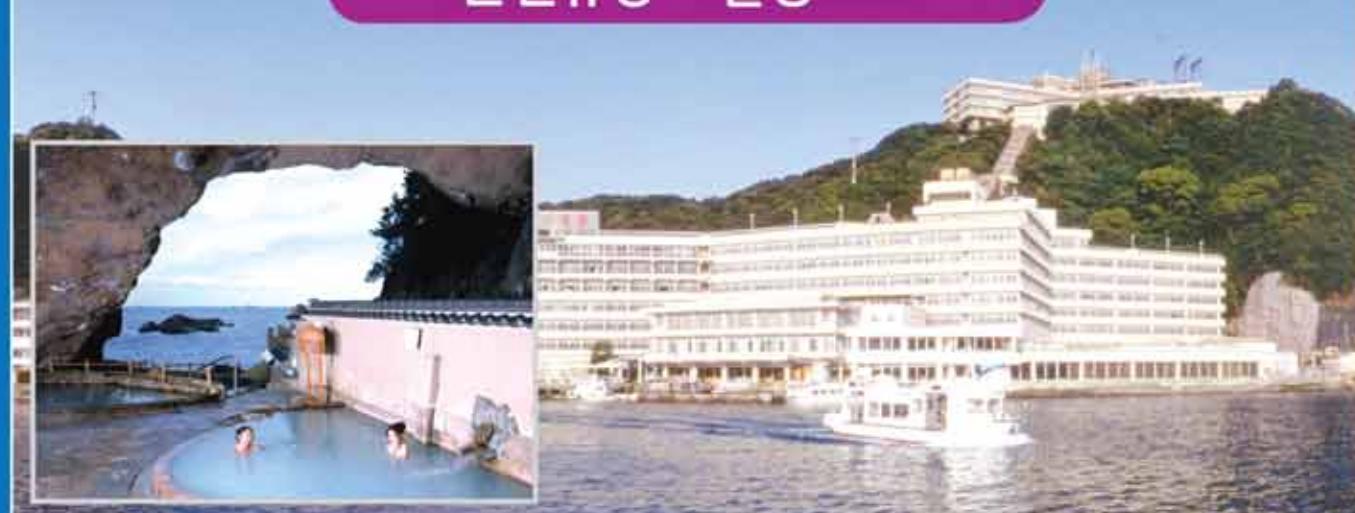
DREAM LAND
일본 전문
<http://www.DLJPN.co.kr>



추석연휴 무안↔오사카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
출발일시 9월 19일 07:00 무안출발 - 21일 23:30 무안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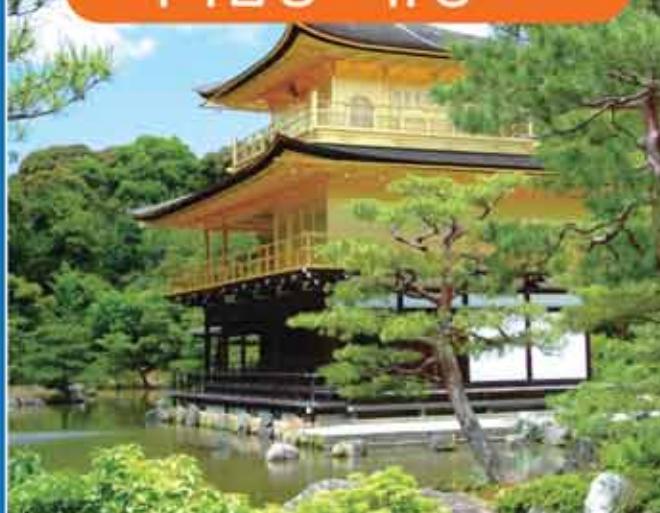


온천휴양 + 힐링코스



와카야마 디럭스 온천 꽉찬 3일 135만원

역사탐방 + 휴양코스



오사카, 나라, 교토 꽉찬 3일 129만원

가족동반 위락시설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3일 135만원

광주 아시아여행사
062) 228-3000

광주 샘투어
062) 515-7667

광주 삼성드림투어
062) 951-1360

목포 모두모아여행사
061) 453-0008

목포 여행나라
061) 262-3400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행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활증료는 상기상품 가격외 별도 지불되며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 2010-4 호(광주광역시 남구청) ■ 2억원 보증보험 가입 ■ 숙소 : 일급호텔이상 ■ 교통편 : 항공

광주 게임 콘텐츠 첫 수출

지역기업 인터세이브 등 기업과 계약

광주지역에서 개발된 게임 콘텐츠가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된다.

광주시는 지난 6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지역 기업인 주인터세이브(대표 이갑형), 츄스마트매직컴퍼니(대표 진효범)가 중국 북경화우상련과 기관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소비도 덩달아 줄어들어 큰 걱정”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등을 받아 산간에 판매하는 등 격차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주인터세이브는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체로서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스페인어권을 중심으로 게임콘텐츠를 수출하고 있으며, ‘애플’, ‘구글’을 통한 게임 플랫폼 상용화 추진을 위해 스마트폰 게임 40여종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매직컴퍼니는 마술교육 및 미술콘텐츠 개발업체로, 마술과 관련한 공연·교육·마술도구·마술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마술콘텐츠를 개발해 국내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기업인 주인터세이브 및 츄스마트매직컴퍼니는 중국 차이나텔레콤 관련업체 간 업무제휴 계약체결은 지역업체의 수요 창출을 유도하고,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해외 문화수출 강국의 선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자립화 기반을 마련해 보유하고 있다.

지역 업체와 중국 차이나텔레콤 관련업체 간 업무제휴 계약체결은 지역업체의 수요 창출을 유도하고,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해외 문화수출 강국의 선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자립화 기반을 마련해 보유하고 있다.

▶ 주간 증시 포커스

외국인 공격적 매수세… 주가 회복 개연성

지난주 KOSPI는 11일 연속된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6월 급락 이후 형성된 박스권의 상단인 1,940선을 기록하고 있다. 1,95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시작된 8월 13일 이후로 봤을 때, 총 4조483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KOSPI로 유입되며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1,930~1,950pt 구간에 겹겹이 포진하고 있던 기술적 저항도, 외국인의 러브콜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기존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수급개선 양상이 건설, 보험, 증권 등 나폴과 과업종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상존한 대외 변동성 요인과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도,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둔 관망 심리 등을 고려하면 전략적인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주 발표된 주요국 8월 제조업 지표에서 확인된 것처럼 실물지표 개선세 속에 강화되고 있는 경기회복 모멘텀과 최근 변동성 확대과정 속에서도 안정적

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달러 인덱스 등 견고한 대내외 펀더멘탈을 판단의 잣대로 세워둘 필요가 있다.

17~18일로 예정된 9월 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규모 축소가 본격화될 경우 일시적인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출구 전략 로드맵을 밝혀왔던 만큼 안전자산 선호현상의 빌미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 지속과 그에 따른 KOSPI의 중기 추세 회복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변동성 확대에 따른 단기 등락과정을 이용하여 가시적인 이익 및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종목군을 중심으로 비중 확대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 PB